

파랑새 극장

조예나(파랑새극장)

1. 단체 선정 이유

학교에 입학하여 교내 밴드공연을 통해 밴드음악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처음엔 마냥 무대에 서있는 선배들을 동경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각기의 악기들이 모여 풍부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밴드음악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후 동아리 '지락' 활동을 통해 교내 자체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음악을 듣는 입장을 벗어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리를 표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무대 자체에 대한 흥미로 번지게 되었다. 졸업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개인무빙을 통해 관심사인 공연장이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을 더불어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들여다보는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길을 그려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자 했다.

2. 단체소개

파랑새극장은 1984년 대학로 최초의 민간 소극장으로, 최초의 상설 어린이 극장 개관과 함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에게 무대를 제공하며 라이브 공연 위주의 주요한 음악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김광석, 동물원, 들국화 등 다양한 뮤지션들이 파랑새극장에서 공연을 시작하고, 관객과 만나 음악세계를 만들어 만들어나갔다. 오랜 역사를 가진 파랑새극장은 2019년 '공공그라운드' 산하에 실험하는 아티스트들의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근본적인 헤리티지를 계승하며 소극장이 주는 친밀함을 통해, 문화의 공간 대학로에서 좋은 공연과 즐거움을 모든 이에게 주고자 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운영 중이다.

파랑새극장을 운영 중인 공공그라운드는 공공에 함께 공(共)을 사용하여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학로의 상징과도 같은 샘터사 사옥을 매입하며, 이 공간을 보존함과 동시에 역사, 사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개발 명목으로 사라지지 않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시대가 변해도 가치있는 공간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이다. 실제로 대안학교 '거꾸로 캠퍼스'와 청소년 작업공간을 지원하는 '스토리 스튜디오' 등 미래 세대들의 교육과 창의활동을 돕는 시설들이 입주되어있다.

3. 업무기간

업무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시~18시로 점심시간 제외 7시간 주 5일 근무를 했다. 중간에 회사에 아무도 없는 날 하루는 재택근무를 진행했다. 주말에 출

근해야하는 주는 월요일에 출근을 안 하는 방식으로 주 5일 근무를 맞춰주셨다. 굿

(1) 업무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날짜			1	2	3	4	5
오전			지방선거일	실습 시작일			
오후				- 건물 투어(w.데이브) - 협약서 작성 - 주간회의	- 과제#1 진행		
참고사항	* 과제#1: 음악전문 소극장 비교 * 수시로 SNS 확인하며 타공연장 6~7월 공연 일정 정리						
날짜	6	7	8	9	10	11	12
오전	현충일	- 과제#1 진행	- 과제#1 진행 - 주간회의	- 과제#1 진행	- 과제#1 마무리		
오후		- 티켓/안내 업무	근로기준법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시청	- 큐시트 작성법	- 과제#1 피드백 - 공연장 안전 점검		
참고사항	* 서울라이브 미팅 있을 경우 미팅 참여 * 수시로 SNS 확인하며 타공연장 6~7월 공연 일정 정리						
날짜	13	14	15	16	17	18	19
오전	- 과제#2 진행	- 과제#2 진행	- 과제#2 진행 - 주간회의	- 과제#2 진행			
오후	- 음향 교육(14:00)	- 조명 교육(15:00)	공연예산안 준비&작성	- 과제#2 마무리	- 음악공연 답사 (과제#3, 일정 자음)		
참고사항	* 과제#2: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 사례 * 수시로 SNS 확인하며 타공연장 6~7월 공연 일정 정리						
날짜	20	21	22	23	24	25	26
오전		- 과제#2 피드백 - 과제#3 진행	- 과제#3 진행 - 주간회의	- 과제#3 진행	- 과제#3 마무리	서울라이브 공연일 실습 종료일	
오후		- 001스태이지 장비점검	-TBD	- 공연 준비	- 과제#3 피드백 - 공연 준비	* 출근시간 별도 공지 - 공연 준비 - 공연 운영 - 정리 및 피드백	
참고사항	* 과제#3: 소극장 음악공연 답사 및 분석 * 수시로 SNS 확인하며 타공연장 6~7월 공연 일정 정리						

(2) 나의 역할 및 업무

나의 업무는 전반적인 공연 준비와 대관연락 응대(매니저님 부재시), 공연장 운영 교육, 음향/조명 교육, 매 주 다른 주제의 공연장 조사 과제 등이 있었다. 출근 첫 날 비즈니스 메일 작성 교육과 대관 안내 전화 대응 교육이 있었다. 비즈니스 메일 작성 교육은 매니저님께서 상황을 던져주시면 그거 맞는 메일을 작성하고 피드백 받는 형식이였다. 하우스 운영, 홈페이지 공연정보 업로드, 큐시트 작성법, 공연예산안 준비&작성 등 실질적인 공연장 운영 시스템 교육을 더불어 근로기준법 교육까지 진행해주셨고, 음향과 조명기기 사용법을 감독님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이외에 공연장 관련 과제를 매 주 내주셔서 타 음악전문 공연장 조사,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 사례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를 토대로 현장답사를 갔다 오는 활동도 진행했다. 일정표엔 없지만 매니저님의 부탁으로 파랑새극장 음악공연 히스토리 정리도 맡아서 진행했다. 25일 공연에 포스터 부착 등 공연 시작 전 공연장 세팅과 공연 당시 위에 찍어있는

빔프로젝터 진행를 단독으로 맡아 진행했다.
(자료가 보고싶다면 나를 찾아오도록.)

#1. 공연 14일 전 아티스트와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상황

[상황]

- 뮤지션 A의 대관 공연이 5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오늘은 5월 16일로, 공연일 일주일 전까지 아티스트가 가지고 오는 장비를 확인하여 극장 엔지니어에게 전달해야 하며, 매표소 운영 인력이 섭외가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공연 당일에 극장 주차장에 주차를 할 예정인지 주차를 할 예정이라면 차량 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 뮤지션에게 메일을 보낸다면?

그림 2 비즈니스 메일 교육 상황 제시

안녕하세요.
파랑새극장 조예나입니다.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지 날이 뜨거워지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5월 30일에 진행하는 공연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해야할 점이 생겨 메일 드립니다.

- 가져오시는 장비 확인

가져오시는 장비를 엔지니어 분께 사전에 전달드려야해서 장비 종류와 항목을 정리하여 알려주세요.

- 매표소 운영 인력 섭외 확인

매표소 인력 섭외가 되었다면 인원과 함께 알려주세요.

- 공연 당일 주차장 사용여부

혹시 공연 당일 공연장 주차장에 주차하실 예정이신가요? 공연장 주차장을 이용하실거라면 차량번호를 공연장에 먼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가지 항목 확인해보시고 이번주 안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림 3 제시에 대한 답변 메일 작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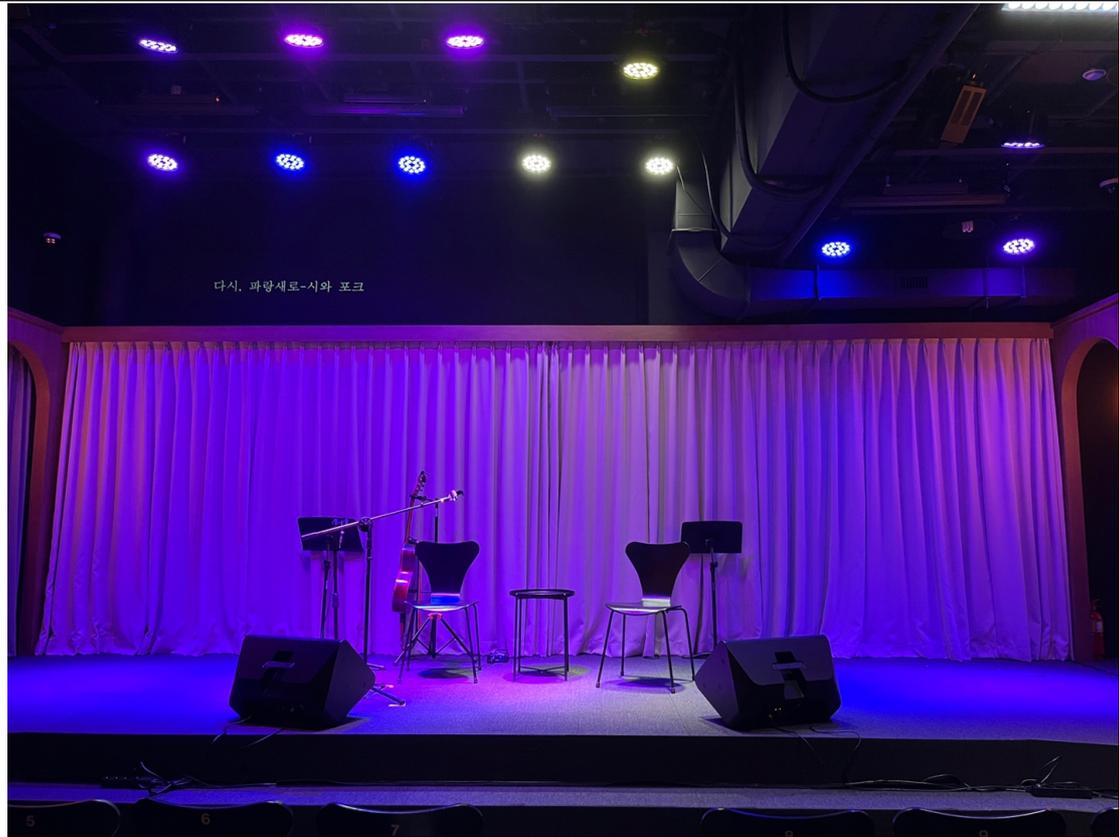


그림 4 공연 당일 무대



그림 5 공연 윤덕원x오은 무대

4. 활동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제일 기억에 남는 걸 이야기하라면 난 출퇴근길 지하철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지옥철'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다. 출근길은 그나마 버틸만했지만 퇴근길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울렁거린다. 그래도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것 같다. 소소하지만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대학로 골목에 있는 식당과 카페를 찾아가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나누던 대화들이 너무 행복했다. 그 시간이 출퇴근 지하철을 이길 수 있게 해준 이유였다. 공연 날이자 출근 마지막 날, 우여곡절로 공연을 끝내고 출연진분들과 다 함께 회식을 마치고 대표님과 인사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같은 자리에 있으니 대학로 올 때 꼭 연락하라는 대표님의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아쉽다. 아주 끈질기게 대학로에 갈 생각이다.

5. 활동 총평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꽤 많은걸 얻은 것 같다. 가기 전 방치되진 않을까 긴장했던 내가 머쓱할 정도로 과분한 관심 아래 3주를 보냈다고 느낀다. 대표님과 매니저님께서 '이런 것까지 보여주시네?' 싶을 정도로 파랑새 극장에 모든 걸 보여주시고, 어딜가든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메일 작성이나 세금 교육, 근로기준법 교육 등 오피스 업무들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셨다. 또 음향교육을 해주신 감독님이나 공연날 오신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로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과 여러 방향을 제시받기도 하고, 막막할 때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명함까지 받는다... 진로로 생각하는 직종에 종사중인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기론, 모두 최대한 많은 걸 배워갔으면 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셨다고 한다. 다시 생각해도 참 따듯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던 3주였다.

6. 부록

(1) 일지